불교방송, 난치병 어린이 위해

3000만원 기탁

5월27일, 복지재단에 전달

불교방송이 난치병 어린이 지원을 위해 종단에 3000만원을 기탁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5월27일 서울 불교방송 사장 집무실에서 난치병 어린이 지원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복지재단에 전달된 성금은 불교방송이 소외된 이웃을 돕는 라디어 프로그램인 '거룩한 만남'을 통해 4월 한 달 동안 난치병 어린이 3가정을 소개하고 ARS를 통해 모금한 것이다. 불교방송은 4월23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난치병어린이를 돕기 위한 3000배 철야정진'을 복지재단과 공동으로 주관하기도 했다.

복지재단은 앞으로 불교방송 성금을 비롯해 조계사, 고창 선운사, 부산 홍법사에서 3000배 철야정진으로 모은 후원금 8000여 만원을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치료비 지원 대상자는 이달 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병원법당, 불교계 복지시설 등에서 추천받은 어린이 40여 명을 선정한다. 치료의 시급성을 고려해 1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의 치료비가 전달될 계획이다. 허정철 기자

민족문화수호기금 1000만원 '보시'

이기흥 체육인불자회장

이기흥 체육인불자연합회장〈사진〉이 불기 2555년 불자대상 상금 500만원에다가 500만원을 보태 총 1000만원을 민족문화수호기금으로 전달해 훈훈함을 전해주고 있다.

이기흥 체육인불자연합회장(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은 지난 5월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민족문화수호기금으로 사용해 달라며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기흥 체육인불자연합회장은 "너무나도 큰 상에다가 상금까지 주셨지만 도저히 쓸 수가 없어 민족문화수호기금으로 전달하게 됐다"면서 "오는 6월 선수촌 법당에서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기원법회에 참가해 유치 기원에 힘을 보태주고, 내년 7월 개최되는 런던올림픽에도 직접 자리를 함께해줘 선수들을 격려해주기 바란다"며 총무원장 스님을 공식 초청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日지진 희생자 위령제 봉행

종단협, 성금 1천만엔 전달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사)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는 지난 5월23일 일본 정토종 광명사에서 '동일본 대지진 희생자 위령제'를 봉행했다.

한·일 불교계가 함께 참석해 거행된 위령제는 추도사와 헌화, 불교 의식 및 살풀이 등으로 희생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이와 함께 종단협과 한일불교협의회는 지진에 따른 피해복구 성금으로 1000만엔(한화 약 1억35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종단협 회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스님이 대독한 추도사에서 "한국 불교도들은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힘쓰는 일본 국민들을 도울 수 있는 작은 손을 내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한장의 불교신문 한사람의 포교사
구독신청 (02)730-4488 광고문의 (02)730-4490

종책모임 화엄회와 법화회가 지난 5월26일 선서화전 수익금 3억원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스님 노후복지에 도움 되길…"

화엄·법화회, 선서화전 수익금 3억원 전달

종책모임 화엄회와 법화회가 선서화전 수익금 3억 원을 종단의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화엄회(회장 성직스님)와 법화회(회장 정념스님)는 지난 5월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아름다운동행 이사장)을 예방하고 기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기금은 승려복지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처음 종단에 기탁된 기금이라 의미를 더했다. 기금 가운데 1억 원은 승려노후복지기금으로, 2억 원은 자비나눔기금으로 사용된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선서화전을 통해 어렵게 모은 기금을 승려노후복지기금으로 전달해 줘서 고맙다"며 "기금은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다"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스님들의 노후복지는 종단에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스님들이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엄회 회장 성직스님은 "원장스님을 비롯한 중앙교역직 스님, 본·말사 주지스님께서 도와줘 전시회를 원만하게 회향할 수 있었다"며 "이번 기금이 스님들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사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화회 회장 정념 스님도 "승려노후복지사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모든 스님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엄회와 법화회는 지난 4월11일부터 '나눔의 기쁨, 나눔의 향기'라는 주제로 개최한 선서화전에서 총 6억5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제3세계국제구호사업을 펼치고 있는 로터스월드와 지구촌공생회에도 5000만원을 보시했다. 나머지 3억 원은 종책연구비용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현장에서

형제 스님의 '아름다운 포교'

지난 5월25일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 인근 법화경연구소. 10여평 남짓한 한칸 법당에 '보살님' 50여명이 차례차례 들어섰다. "아이고 신발을 어데 놓노?" "보살님예~ 수박이랑 참외는 이쪽으로 주시라예~" "좁다카더니 이 정도면 너르네~" 여기저기 부산사투리가 쏟아져 나왔다. 〈법화경〉을 연구하는 법성사에 무슨 일인가. 김해 대법륜사 신도들이 회주 스님의 속가 막내 동생인 법화경연구소장 법성스님을 찾아 서울까지 온 것이다. 전날 부산을 출발해 간월암에서 철야기도를 마치고 조계사와 도선사에 가기 전 법성사를 방문한 것. 대법륜사 회주 금강스님은 이제 막 작은 포교당을 문 연 막내 스님의 포교원력에 박수를 보내고 격려하기 위해 신도들과 일부러 들른 것 같았다.

금강스님은 신도들 앞에 서서 말했다. "여러분~ 참 좁지요?(전체 웃음) 일어서기 힘드니까 그냥 앉은채로 예불을 올립시다. 보현행원도 부르고…." 금강스님은 가난한 살림에 어렵사리 모신 부처님을 바라보며 "여기 있는 몇몇 보살님도 잘 아시지만, 제가 45년 전 처음 포교를 시작할 때 팔뚝만한 목불 하나 모시고 이보다 훨씬 작은 법당에서 달랑 다섯명이 기도했다 아입니까?" 신도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박수를 보냈다. 금강스님은 "지금은 1000평이 넘는 대법륜사가 우리 도량이니 얼마나 행복하느냐"며 "이 도량도 언젠가는 100평 1000평으로 중창하고 거듭날 것"이라고 응원했다. 가사장삼을 수하고 불전에 앉은 법성스님은 법회내내 감사와 고마움에 코끝이 빨갛게 물들었다.

하정은 기자 tomato77@ibulgyo.com

전통사찰 건폐율 30%로 완화

국토계획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전통사찰의 건폐율이 완화돼 건축물의 증·개축이 보다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25일 전통사찰의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비도시지역의 사찰과 향교, 서원 등 전통문화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이 기존의 20%에서 30%로 완화됐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6월14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은 기존 건폐율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정부가 종단과 사전협의 없이 발표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총무원 기획실장 정만스님은 "기존보다는 나아진 안이기는 하지만 종단과 협의 없이 발표돼 아쉽다"면서 "불교규제 제법령에 대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이주노동자 배구대회 개최

19일 양천구민체육센터서

불교계 주최로 이주 노동자 배구 대회가 열린다.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공동대표 지관스님)와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이사장 김규범)은 오는 19일 오전9시부터 오후4시까지 서울 양천구민체육센터 대체육관에서 이주민 배구 큰 잔치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미얀마, 태국, 네팔, 방글라데시 등 9개국 10개 팀 500여 명이 참가한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스님, 사회부장 혜경스님을 비롯해 전국 18개 회원단체도 동참한다.

특히 9개국 대사들이 자국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을 예정이며, 경기종목은 배구·줄다리기 등이 진행된다. 전통의상, 공연 등도 선보이며, 각국 응원전도 흥미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 음식문화 축제'도 행사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양천구민체육센터 옆 공원에서 진행된다.

김규범 불교생활의례문화원 이사장은 "아시아 불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과 우의를 다지며 봉사자들이 이주민들을 위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주협과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은 이번 배구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통도사 '산중회의' 출범

영축총림 통도사 대중이 지난 5월27일 '산중회의'를 출범시켰다. 산중회의는 총림운영 정상화를 표방하며 만들어진 비상대책기구로, 법랍 10년 이상의 통도사 재적 스님 61~7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의장에는 명신스님(서울 보현사 주지), 부의장에는 재경스님(밀양 표충사 주지)과 범해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이 추대됐다.

산중회의는 통도사 육화당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정관을 채택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산중회의가 발표한 성명서에는 종헌종법에 따라 열린 5월24일 산중총회는 적법하며, 대중공의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중회의는 이날 채택한 성명서를 30일 조계종 총무원에 접수할 예정이다(5월27일 현재).

이와 함께 5월24일 산중총회에서 방장 원명스님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하고 무기한 단식정진에 들어간 주지 정우스님은 27일 현재 4일째 단식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산중총회에서 차기 방장으로 추천된 조계종 원로의원 월파스님은 고사의 뜻을 밝혔다. 월파스님은 5월25일 "현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가 방장을 하라고 해도 방장의 자리에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봉 국가안녕과 불교중흥을 위한 호국법화경 사경봉안 대법회 축

천안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 6월 11일(토) 오전 9시부터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천불천탑 조성도량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에서는 법화경 사경을 탑 속에 모시는 사경봉안법회를 봉행합니다.

예로부터 법화경은 나라를 지키는 호국경전으로 알려져 왔으며, 국가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마다 국난극복의 의지로 법화경을 사경해 온 역사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일심으로 사경한 법화경 사경을 탑 속에 모시는 봉안식을 통하여 불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발원합시다. 아울러 불자가수들의 참여하에 흥겨운 산사음악회도 봉행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회주 석 도 림 · 일백만 법화행자 일동 합장

행사일정표

6월 11일
오전 헌공 및 설법
오후 법화경 사경봉안식
초청가수 공연
서화문화축전
철야기도

천안역 셔틀버스운행안내
1호선 전철 천안역 하차(천안역 호두과자점 앞)
11일(토) 오전 7시 30분 ~ 낮 11시까지 운행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 행사장 도착

버스표 구입안내 법화정사
1호선 제기역 1번출구 출발 02-928-1331, 1340

6월 11일 천안 구룡사 사경봉안 대법회
■ 각 지역별 연락처 (차량은 지역별로 운행)

천안 구룡사	041-552-9666	진주 박인순(관음행)	011-9312-5712
제주평화통일불사리탑	064-783-8801	수원 박찬희(보현심)	010-6304-3459
부산대연 법화정사(묘진행)	051-623-3595	분당 구순희(명심행)	011-9248-3844
부산초읍 법화정사(청정심)	010-2798-6666	울산 윤태숙(수선화)	010-2548-0753
대구 법화정사(백운)	053-751-2366	강릉 민영희(자비화)	010-2287-8855
구미 법화정사(문수행)	011-825-8558	원주 강옥녀(대도행)	033-743-8845
전주 법화정사(정수행)	010-6808-2807	횡성 심명옥(일승행)	010-9921-3690
청주 김명복(백련심)	043-231-5136	인천 정영섭(마이심)	010-6295-1068
광주 은미사(연등행)	062-223-4752	마산 윤숙자(묘연화)	010-2591-3934
광주 영광사	062-266-6981	창원 조민경(관음성)	010-8528-4218
순천 김덕임(대덕행)	017-622-1965	대전 김영숙(지혜심)	010-4433-9100
진해 김기연(성불심)	010-9570-3475	김해 박태향(관음행)	016-9374-3571
진주 조갑임(금선화)	010-6799-8584		

■ 문의 : 서울 법화정사 02-928-1331 ■ 장소 : 천안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 (충남 천안시 수신면 백자리 288-2, 041-552-9666~8)